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2014. 6. 19

김석영·김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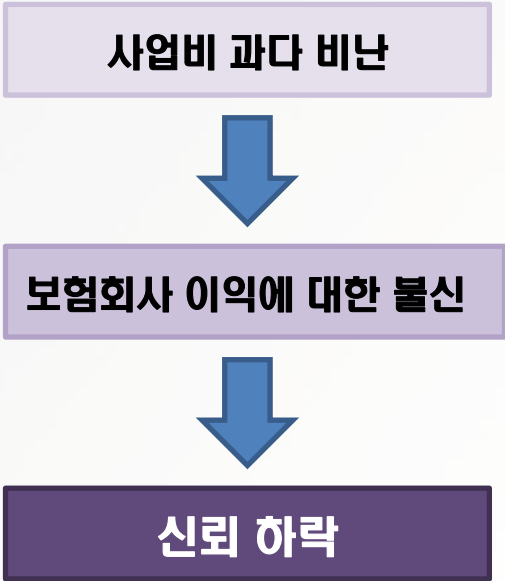


- I** **보험회사 수익구조 현황**
- II** **수익구조 진단**
- III** **수익구조 개선방안**
- IV** **지속성장을 위한 수익성확보**
- V** **결론**

보험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존재

- 한겨레신문, 2011.02.04, 생보사, 보험료 사업비 폭리..."매년 2조 남겼다" .
- SBS, 2009.07.21, 생명보험사 사업비 차익 2조원...소비자는 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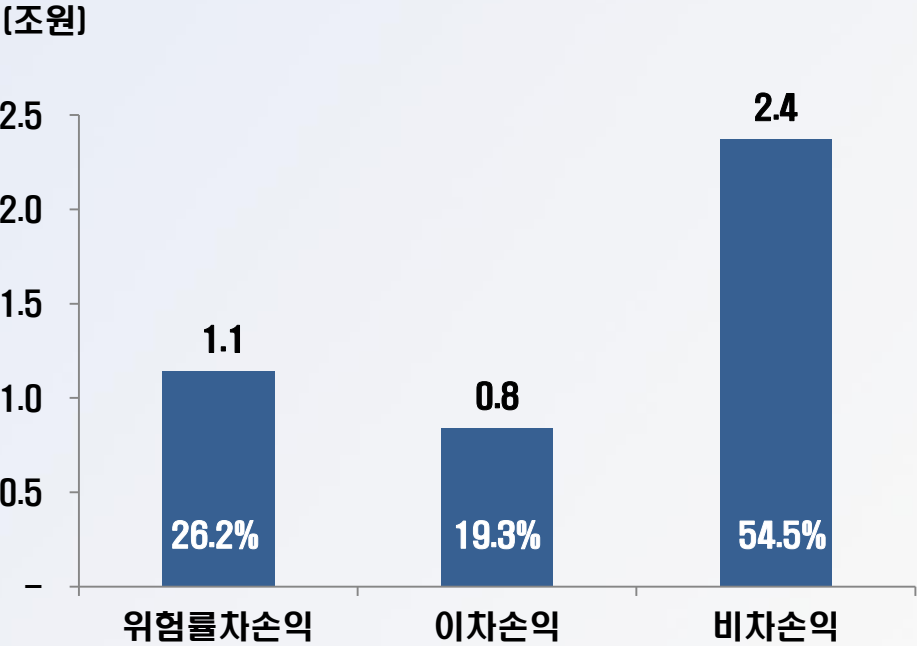
·
·
·
서울경제, 2008.07.30, 「물지마 보험료 천국」 <중> 사업비는 대외비
연합뉴스, 2007.10.15, 생보사 사업비차익 1조9천억..보험료 거품
파이낸셜뉴스, 2004.05.05, 생보 과도한 ‘비차익 챙기기’ 제동
문화일보, 2003.10.14 生保수익 느는데 보험료 올려?
한국경제, 2003.07.01 생보쓰고 남은 사업비 3조 8000억.. 4년만에 7배 늘어
한국경제, 2002.05.06 [이익원 기자의 보험 X-파일] 생보사 ‘바가지 보험료’ 시비
·
·
·



*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수익구조는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국한함.

보험회사 수익구조, 비차익에 편중

FY2011 3이월 현황



- 비차익은 전체 손익중 54.5% 차지
- 보험회사 손익구조, 비차익에 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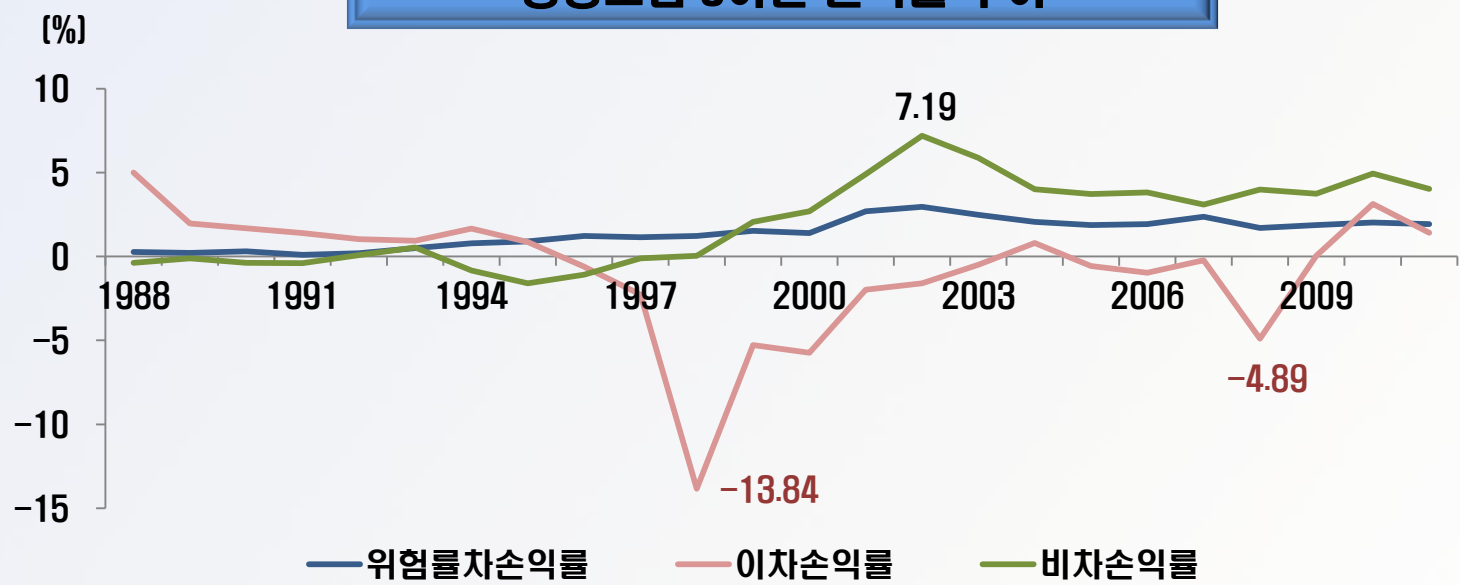
- FY2011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 : 4조 3천억원
 - 비차익 : 2조 4천억원
 - 위험률차익 : 1조 1천억원
 - 이차익 : 8천억원

주 : 당기순이익은 법인세차감전 값임.
자료 : 보험개발원

과거 이차역마진을 비차익으로 보전

- 1990년대 말부터 이차역마진 심화
- 이차역마진 심화와 일정 시차를 두고 비차익이 증가

생명보험 30의원 손익률 추이



주 : 손익률= 이원별손익/일반계정 수입보험료임.
자료 : 보험개발원



- I** 보험회사 수익구조 현황
- II** 수익구조 진단
- III** 수익구조 개선방안
- IV** 지속성장을 위한 수익성확보
- V** 결론

3이원의 과거와 현재 : 이차익

이차익 추이

- 외환위기 이후 금리하락으로 확정고금리 상품의 이차역마진 발생
- 금리확정형에서 금리연동형 상품 전환으로 이차역마진 대응

이차익 현황

- 가격통제로 예정이율의 자율적인 설정 제한
- 저금리로 자산운용이 어려움
- 이차익 확보가 쉽지 않음.

30이원의 과거와 현재 : 위험률차익

위험률차익 추이

- 3년마다 참조위험률 갱신으로 사망담보의 위험률차익 축소
- 위험률 안전할증은 최고 30%로 제한되어 충분한 안전할증 곤란
- 위험률차익은 담보상태

위험률차익 현황

- 위험률의 미래 상승추세에 대한 안전할증 미반영
- 암보험과 같은 건강담보의 미래 손실 가능성 존재
- 건강보험의 판매 확대로 위험률차익 확대 제한적

3이원의 과거와 현재 : 비차익

비차익 추이

- 예정사업비는 예정신계약비와 예정관리비로 구성
- 과거 신계약비에서 비차익을 실현했으나,
- 표준해약환급금제도 도입으로 신계약비차익 제한적

비차익 현황

- 해약환급금 규제로 예정신계약비 확대 한계
- 예정관리비 중심의 비차익 실현 가능
- 예정관리비에도 그림자 규제 존재

비차익 중심 수익구조는 불가피한 선택

◆ 현 제도하에서 예정관리비를 통해서만 이익 확보 가능

-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이차익을 확보하기는 어려움.
- 미래의 추세에 대한 안전할증이 없는 상황에서 위험률차익 확대 제한적
- 보험회사는 예정관리비에서만 비차익을 확보할 수 있음.

◆ 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

- 비차익은 이차손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험회사의 성장을 견인
- 향후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한 준비금의 성격이 강함.



- I** 보험회사 수익구조 현황
- II** 수익구조 진단
- III** 수익구조 개선방안
- IV** 지속성장을 위한 수익성확보
- V** 결론

보험의 본질적 기능을 통한 이익 실현

◆ 보험회사는 위험 인수 및 관리를 통해 위험률차익 실현 필요

- 위험인수 및 관리는 보험의 본질적 기능
- 보험계약자는 위험전가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음.
- 따라서 위험률차익은 보험회사의 기본적인 수익임.

◆ 이를 위한 다양한 위험 보장 및 관리 노력은 사회후생 증대

- 개인의 다양한 위험을 인수함으로써 효용증가
 - 치매, 장기요양, 중복암 보장 등 위험 인수범위 확대
-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노력은 개인과 보험회사 모두에게 이익
 - 다양한 건강관련 정보 제공

보험의 본질인 위험인수 및 관리를 통한 이익 실현 필요

◆ 위험률차익은 비차익에 비해 안정적인 흐름을 보임.

- 비차익은 일반적으로 보험료 완납 후 대폭 축소
 - ✓ 신계약의 지속적인 유입이 없을 경우 비차익 규모 유지 곤란
- 위험률차익은 적절한 위험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보장기간 내내 실현됨.

◆ 언더라이팅 및 심사 능력 향상으로 위험률차익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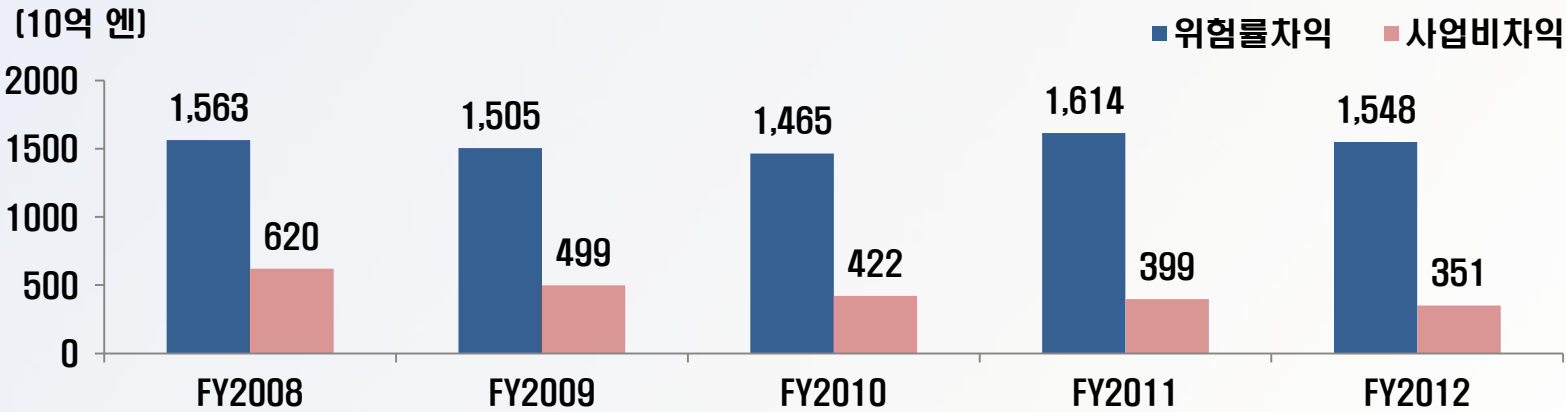
- 비차익은 상품판매 능력에 의존하는 반면,
- 위험률차익을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 배양이 요구됨.
 - ✓ 우량 고객 선발을 위한 언더라이팅 능력
 - ✓ 적합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 능력
 - ✓ 다양한 보장을 위한 상품개발 능력
- 보험회사의 기본 역량 향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함.

일본 사례 :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

◆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이차역마진을 위험률차익으로 보전

- 일본 생명보험회사도 이차 역마진 발생하였으나,
- 우리나라와 달리 이차손을 비차익이 아닌 위험률차익으로 보전함.

일본 주요 생명보험회사 수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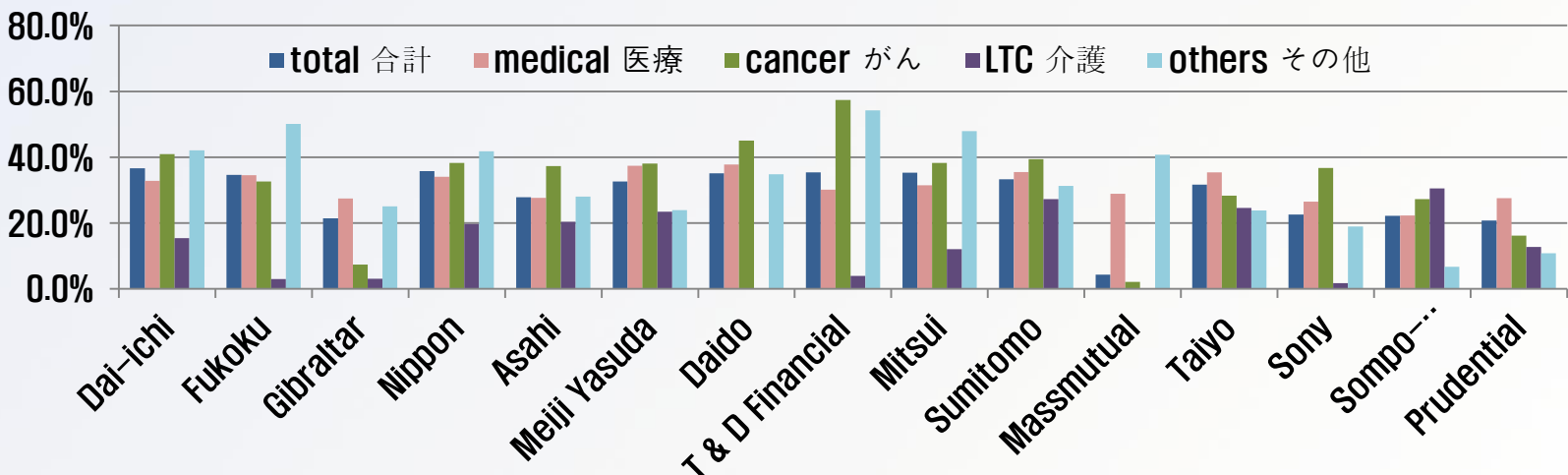


주 : 제일생명, 스미토모생명, 아플락생명, 간포생명, 메이지야스다 생명의 합임.
자료 : 각사 연차 보고서

일본 사례 : 충분한 안전할증 허용

- ◆ 통계적 변동성 및 미래의 변동성을 고려한 안전할증을 허용함.
- 암보험 , LTC보험 등 건강담보 등도 발생율이 낮음.
- 이익의 대부분을 위험률차익에서 구현함으로써 이익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적음.

2011년 일본 생보사 발생율



주 : 발생율 = (지급보험금 + 실제사업비) / (예정순위험보험료 + 예정사업비)
자료 : 각사 연차보고서

일본 사례 : 다양한 가입연령과 보장기간 제공

- ◆ 충분한 안전할증으로 입원 수술과 같은 담보도 종신보장 가능
 - 충분한 안전할증으로 상품의 갱신없이 종신보장
 - ✓ 우리나라는 갱신행 또는 세/년만기 상품으로만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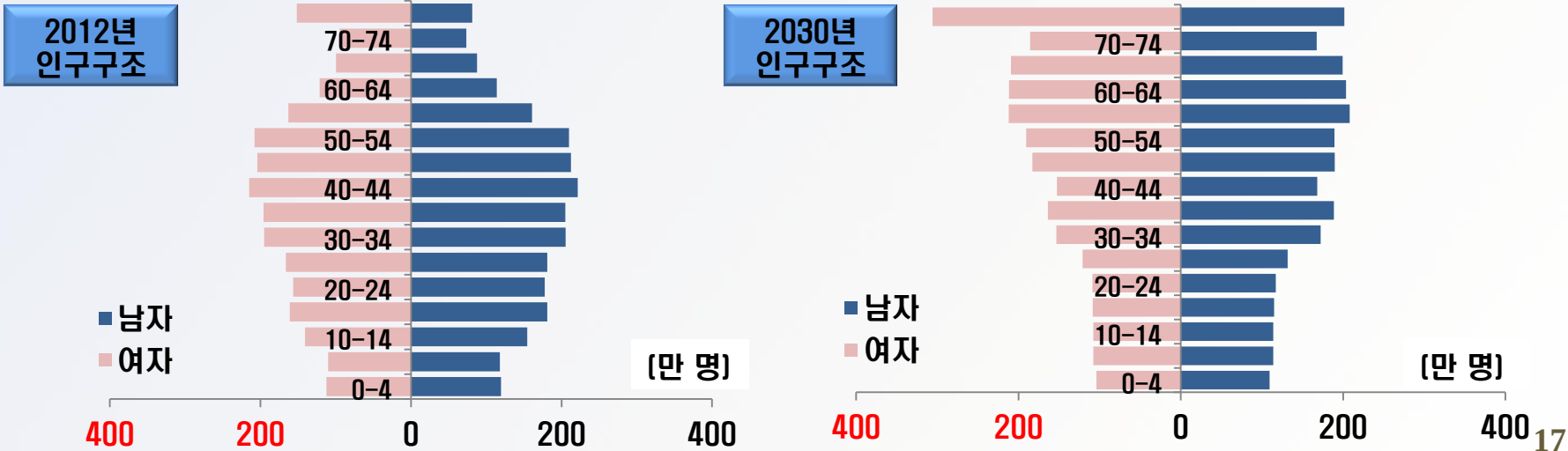
일본 상품 예시

	담보	가입연령	보장기간
메이지야스다	입원, 수술, 통원치료, 재해	12~70	종신
부국생명	재해입원, 질병입원, 입원, 수술, 방사선치료	15~75	종신
미츠이	부상질병입원 및 수술등 상해	종신남: 30~75*	종신
지브롤터	입원, 수술, 고도장해	0~75세	정기형: 10년, 15년, 50세 ~80세만기(5세단위)
소니	재해입원, 질병입원, 수술, 사망	3세~75세	종신
메트라이프 알리코	질병입원, 재해입원, 수술, 사망	만3세~만80세	종신
약사	입원, 수술, 방사선치료	0~75세	종신

주 :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이 변경됨
자료 : 第三分野商品のすべて, 新日本保険新聞社

인구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시장환경 조성

- ◆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약 5,200만 명까지 증가 후 감소 예상
 - 중간 연령층 인구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
 - ✓ 35~44세 연령층 인구: 약 857만명('08년) → 약837만명('12년) → 673만명('30년)
 - 보험회사의 주요 수요층 감소와 함께 고연령층이 새로운 수요층으로 등장



자료 : 통계청

충분한 안전할증은 고연령 시장 진입의 조건

◆ 현재 충분한 안전할증이 가능하지 않아 고연령 대상 상품개발 어려움.

- 고연령 상품은 충분한 안전할증 요구
 - ✓ 고연령 시장은 새로운 시장으로 통계적 경험 미비
 - ✓ 고연령 특성상 건강상태의 불확실성이 높음
- 위험률차손 가능성으로 인해 상품개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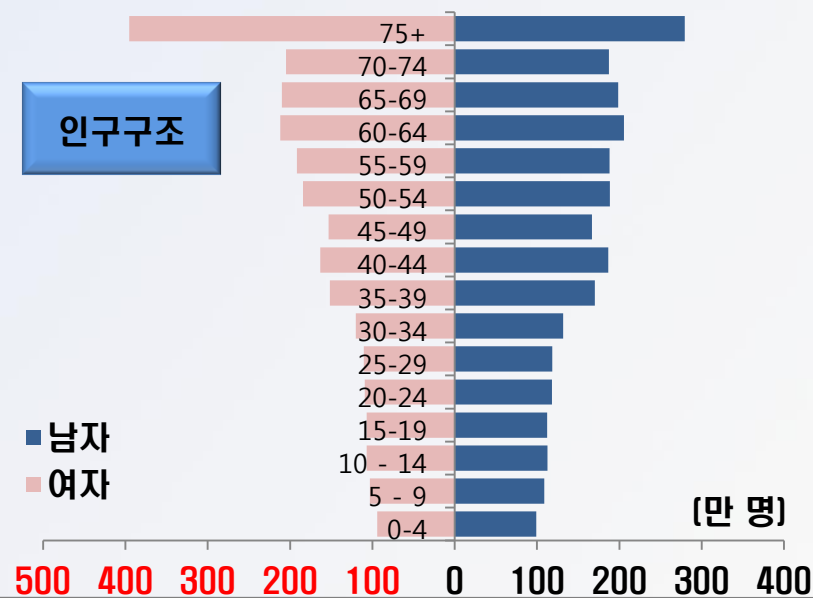
◆ 충분한 안전할증으로 고연령에게 보험혜택 제공

- 충분한 안전할증은 고연령 대상 상품개발 촉진
- 고연령의 다양한 위험 인수로 고연령에게 보험혜택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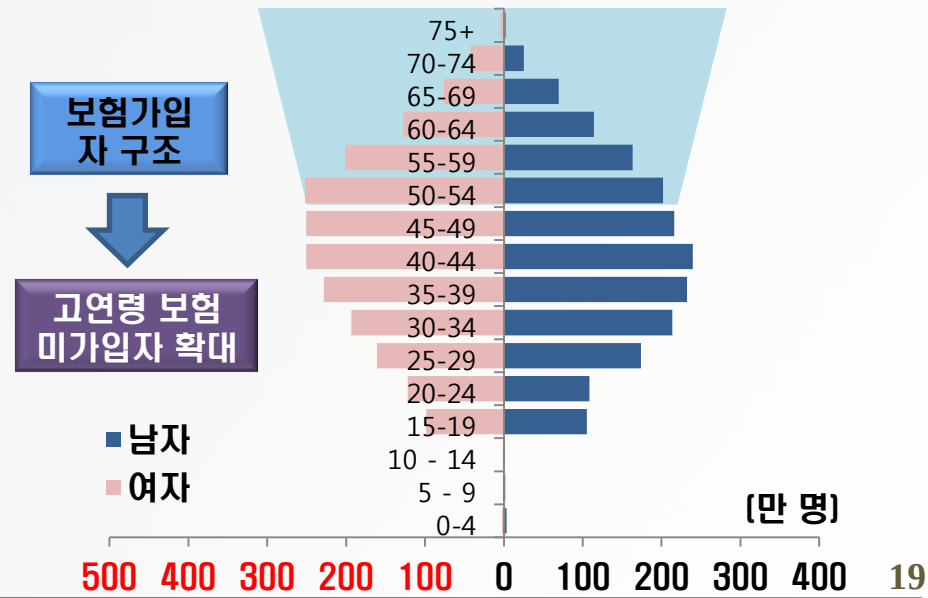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

- 현재의 체제가 유지될 경우 인구구조와 다른 보험가입자 구조 전망
- ✓ 충분한 안전할증으로 새롭게 등장한 고연령층에 상품 공급이 필요

2035년 인구구조 및 보험가입자구조 전망



자료 : 통계청, 보험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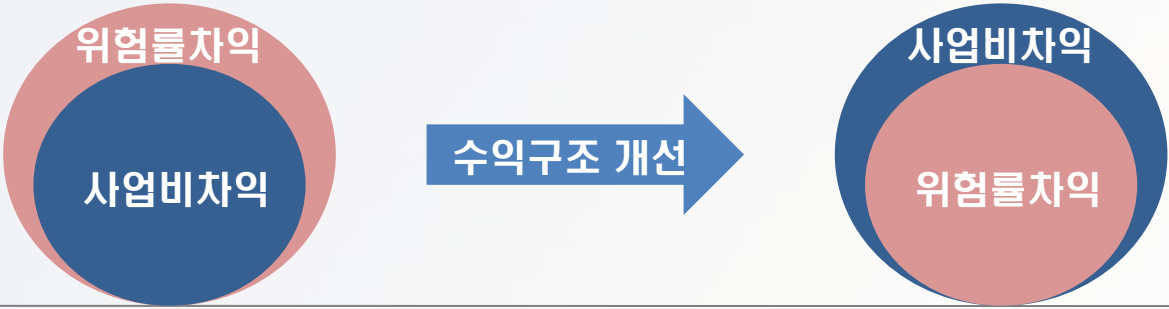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 개선 필요

◆ 보험의 본질적 역할 수행을 통한 위험률차익 실현

- 사회적 비난에 대한 이익의 정당성 확보
- 보험회사 역량 강화로 경쟁력 향상
- 일본의 사례와 같이 다양한 상품 공급을 통한 보험의 사회적 역할 강화
-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 가능

◆ 사업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로 전환 필요



위험률차의 확보를 위한 규제 해소

◆ 안전할증 30% 한도 폐지

- 통계적 안전할증 자율화
 - ✓ 통계적 변동성 고려
 - ✓ 장기 불확실성 고려
- 다양한 상품개발 촉진
 - ✓ 신규위험에 대한 상품 공급
 - ✓ 장기보장 상품의 원활한 공급
- 위험관리를 통한 위험률차의 구현

➡ 보험의 기능 회복을 위한 합리적 안전할증 필요



- I** 보험회사 수익구조 현황
- II** 수익구조 진단
- III** 수익구조 개선방안
- IV** 지속성장을 위한 수익성확보
- V** 결론

지속성장을 위한 수익성 확보 필요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자본 보유

-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수행하기 위함
- 자본 확충 방법
 - ✓ 주식 발행 : 기존 주주의 가치 희석
 - ✓ 후순위채권 발행 : 발행이 쉽지 않음.
 - ✓ 이익 내부 유보 : 자본비용이 가장 저렴
- 이익의 내부 유보가 주요 자본 확충 수단임.

◆ 수익구조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정 이익확보 필요

- 보험금 지급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준의 이익 확보

현 이익규모는 최소 재무건전성 유지 어려운 수준

- FY2012 생명보험산업 전체 당기순이익은 3조 2000억원으로 최소지급여력비율 150%를 유지하기 힘든 수준임.
- ✓ RBC 비율 150% 유지를 위한 당기순이익 규모 : 약 3조 ~ 4조 5천억원

산출근거

- 요구자본은 책임준비금의 5% 수준 (FY2012년~FY2013 평균 수준)
- 책임준비금 매년 10~15% 증가 (FY2007~FY2012 평균 수준)
- 추가적인 자본 유입 없음.

보험료수익 및 당기순이익 규모 추이

	[조 원]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보험료수익	51.2	53.4	57.1	60.4	87.5
당기순이익	0.6	2.5	4.0	3.4	3.2

자료 : 금융감독원

- ✓ 위험률차익 확보로도 재무건전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수익성 관련 그림자 규제

예정이율 규제

- 예정이율을 통한 보험료 통제
 - ✓ 표준이율 인하에 따른 예정이율 조정 통제
 - ✓ 소비자 부담가중 이유로 보험료 인상 억제

예정사업비 규제

- 예정관리비 자율 설정 통제
 - ✓ 예정관리비 설정 시 이전 상품보다 높은 설정 통제
 - ✓ 사업비 차익 확대 곤란

그림자규제 사례 분석

예정이율 인하 억제에 충격 분석

- 2013년 표준이율 0.25%p인하 불구 예정이율 0.25%p 인하 통제
- 예정이율이 표준이율 인하와 마찬가지로 0.25%p 인하되었을 경우
 - ✓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약 3,600억 증가 예상
 - ✓ 당기손익은 180억 증가 예상 (2013년 기준)

산출근거

- 40세 기준 종신보험 보험료 약 6.9% 인상 가능
- 보험료 인상에 따른 판매 감소율은 적용 안 함. (가격민감도 높지 않다고 가정)
- 보장성보험 이익률 5% 가정

지속성장을 위한 수익성 확보 방안

◆ 자율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그림자 규제 해소

- 보험료 산출에 대한 다양한 감독당국의 그림자 규제 해소
- 자율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보험요율의 자율성 강화

◆ 자율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보험회사의 불완전 판매 방지와 같은 영업행위 규제 강화
-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로 지급능력 확보
-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 I** 보험회사 수익구조 현황
- II** 수익구조 진단
- III** 수익구조 개선방안
- IV** 지속성장을 위한 수익성확보
- V** 결론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 전환

◆ 위험률차익 확보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

- 보험회사는 위험관리 능력을 통하여 이익 구현
- 고령층 인구 및 다양한 위험집단에 대한 보험상품을 원활히 공급

◆ 예정위험률 산출에 대한 규제 해소

- 고위험 인수 및 관리를 위한 안전할증 허용
 - ✓ 고위험 인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30% 한도 폐지
- 장기보장 상품의 미래 불확실성 관리를 위한 안전할증 허용
 - ✓ 추세리스크에 대한 안전할증 허용

지속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 자율시장 경쟁을 위한 규제 해소

-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예정이율 운영 허용
- 예정사업비 설정에 대한 그림자 규제 해소

◆ 보험산업의 합리적 발전 유도

- 자율시장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 유도
- 감독당국은 RBC제도를 통한 재무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규제에 집중



감사합니다.